

‘비운의 재상’ 삼봉 정도전의 역사적 복권 꾀한 평전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 펴낸 한영우 교수

최근 삼봉 정도전(三峰 鄭道傳)의 이름이 TV드라마나 출판물을 통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는 조선을 건립한 개국공신이자 조선의 역사적 토대를 마련한 불세출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이제야 세인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삼봉은 개국공신임에도 역모 혐의로 참수당해 조선의 역사에서 부각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웅대한 야망을 이룩한 영웅호걸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30여년 동안 줄곧 삼봉을 연구한 서울대 인문대학장 한영우 교수(61)는 삼봉을 “백성을 지극히 사랑했던 인물”로 평가한다. 이번에 발간한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지식산업사)은 특히 삼봉의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가 삼봉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조선시대’를 연구하면서부터다. 특히 박정희정권이 학원가에 압력을 가하던 시절에 전임강사가 된 그는 조선의 건국이념에 대해 공부하다 개국 브레인 삼봉과 만났다. 그는 삼봉에게서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현실인식의 눈까지 얻게 됐다.

“당시 조선왕조 또는 국시에 대해 선입관이 좋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삼봉집》을 읽어보니 그 속에 엄청난 민본사상이 들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의 정치사상과 대조되면서 강렬한 인상을 받게 됐죠.”

조선왕조를 재평가하게 된 그는 삼봉 연구와 조선전기 사회사 연구를 병행해 《정도전 사상의 연구》 《조선전기 사회사 연구》 등 14권에 이르는 저작을 펴냈다. 한때 그는 학계로부터 “정도전을

조선의 개국공신 삼봉 정도전. 개국 이후 권력을 장악한 그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며 조선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그는 역모를 꾀한 죄로 참수당해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진 비운의 인물이 됐다. 오늘날 다양한 방법으로 그의 복권을 모색하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그의 끈은 마음을 시대가 요구하기 때문이다.

열정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왕과 백성에게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산 셈이죠.”

그러나 삼봉은 왕자를 살해할 음모를 꾸민다는 이방원측의 모함에 걸려 참수당했다. 권력무상이라고 했던가. 개국공신인 삼봉은 묘자리 하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조선의 역사에서 잊혀졌다. 대원군 때 비로소 그는 ‘유종공종(儒宗功宗)’, 즉 유학으로도 으뜸이요, 정치적으로도 으뜸이란 칭송을 받으며 사상적으로 복권됐지만, 여전히 만족할 만한 역사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지성과 야성을 동시에 지닌 인물입니다. 한손엔 붓을 쥐고 다른 한손엔 칼을 든 영웅 호걸이죠. 그의 정열적인 삶, 그 가운데 백성을 사랑하는 삶은 오늘의 정치인들이 본받아야 할 덕목입니다.”

삼봉은 “수령은 백성을 적자(嫡子)처럼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제자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만큼 한교수는 이 말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아 살고 있다. 그는 이제 잠시나마 삼봉과 떨어져 지낼 생각이다. 그동안 우리 고지도에 관한 책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가제)을 펴낼 계획이다.

— 오완진 기자



한영우 교수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
지식산업사/A5신/384면/13,000원



너무 미화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민본사상에 근거한 삼봉의 삶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삼봉은 민본사상을 서재에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그는 서른넷의 나이에 귀양길에 올라 꺾박받는 민초들과 동고동락하며 사회모순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형성된 민본사상은 이후 그의 모든 저작과 제도에 반영됐죠.”

삼봉은 정치·경제·철학·병서는 물론 의학에 관한 책까지 썼다. 한때나마 정치권력도 온전히 장악했다. 그는 이처럼 조선건국 초기에 왕성한 활동을 펼친 삼봉을 ‘초인’으로 평가한다.

“권력을 장악해 누구보다 바쁜 그가 무슨 힘으로 그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백성을 사랑하는